

<본 자료는 잠정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에이디테크놀로지, 2018. 2Q 잠정실적 발표...“역대 최대 매출 달성”]

2018. 2Q 매출 364억 원... 분기실적이 지난해 온기실적 초과!

- ▶ 2분기 기준 전년 온기 매출 322억 원 초과 달성...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 527억 원 기록
 -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 35억 원, 37억 원... 영업이익률 9.5% 달성
 - ▶ 양산수주 지속 증가 및 개발 완료 신제품의 양산 가시화로 실적 쿼텀점프 가속화 전망

<2018-07-27> 에이디테크놀로지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대표이사 김준석)가 잠정공시를 통해 2018년 2분기 매출 364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온기 매출 322억 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치다.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무려 527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분기, 반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 급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대폭 강화되며 2분기 영업이익은 34억 8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37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실적 쿼텀점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외형성장·질적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회사관계자는 “작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 550억 원에 달하는 양산 PO를 수령한 바 있고, 현재도 매월 꾸준히 PO를 수령하고 납품하고 있어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2분기에는 9.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모바일 메모리 컨트롤러 IC뿐 아니라 최근 빅데이터용 SSD 메모리 컨트롤러 IC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PO도 가시화돼, 실적 증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양산과 개발 매출이 동시에 증가하며 에이디테크놀로지의 실적 호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5G 등 4차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개발 의뢰가 늘고 있는데다 개발 완료 제품이 양산으로 이어지며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5G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며 이에 따른 수혜도 예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이디테크놀로지 김준석 대표이사는 “고객사의 양산 수주가 지속 증대되고 있고, 개발 완료 신제품의 양산 또한 가시화되며 폭발적 매출 성장세가 이어져 연초 목표했던 ‘네 자릿수 매출 달성’이라는 목표에 한발 가까워졌다”고 자신하며 “기술 및 제품고도화에도 지속 노력해 4차산업 관련 분야에서의 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양산도 순조롭게 진행해 지속성장을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에이디테크놀로지, 2018년 2분기 실적>

단위 : 억 원

	2017.2Q	2018.1Q	2018.2Q	YoY(%)	QoQ(%)
매출액	77.8	163.1	364.4	368.4	123.4
영업이익	0.08	5.8	34.8	43400.0	500.0
당기순이익	0.4	8.7	37.4	9250.0	329.9

☐ 자료문의 : 에이디테크놀로지 유동희 차장 (031-776-7574)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